

“내 소중한 표 한반도 평화 디딤돌 되길”

이색투표자 - 새터민 양춘실·양현정 자매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에도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새터민인 양현정(49)·양춘실(41) 자매는 지방선거 투표에 참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양현정 씨는 지난 2007년 나홀로 자유를 찾아 압록강을 넘어 월남했다. 동생 양춘실씨도 언니를 따라 2010년 탈북에 성공했다. 두 자매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선거가 낯설다.

여러명의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놓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행동이기 때문이다.

양현정씨는 “1년여 전부터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내정된 사람을 게재한 뒤 형식적인 투표를 한다”며 “사람들은 개방된 투표소에서 감시를 받으며 누구를 찍는지, 반대파의사를 보이지는 않는지 삼엄한 감시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자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꼼꼼히 본 후 의견을 나눈 후 손을 잡고 광산구 수완동 제7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양춘실씨는 “당선자는 우리 같은 새터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교류의 바람이 실현되고자 하는 바람도 투표 용지에 담았다고 말했다.

양현정씨는 “지역의 일꾼을 내손으로 투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었다”며 “당선자가 누가 됐든 지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바람에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광주 동구 지원1동 제3투표소는 관가예식장을 투표소로 만들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지역 일꾼 내손으로 뽑는다”

각 투표소 아침부터 유권자들 발길 이어져 가족단위 투표자 많아... 민주주의 축제 자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광주와 전남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아침일찍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표소는 광주 362곳, 전남 863곳 등 모두 1,227곳에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투표에 참여하는 등 이전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다. 유권자들은 최대 8장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받은 뒤 4년동안 지역 실리를 꾸려갈 일꾼을 선택했다.

이색투표소 ‘눈길’

광주 동구 지원1동 제3투표소는 관가예식장을 투표소로 만들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대개 투표소는 주민센터나 초·중·고교 강당,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땐 색다른 곳에 마련되기도 한다.

이곳은 오리요리전문점인 관가에서 운영하는 예식 겸 식당이다. 주말엔 예식 손님을 전문으로 유치해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맛집이기도 하다.

지역 유권자들은 오전일찍부터 관가예식장 입구에 깔린 레드카펫을 밟고, 투표소에 들어가 한표의 권리를 행사했다.

돌담길로 이어진 투표소 안은 천정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장식돼 유권자들의 마음을 한층 들뜨게 했다. 투표소 곳곳엔 하얀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북구 용봉동에도 특별한 투표소가 마련

됐다. 비엔날레 전시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의 설치 작품(1932-2006) 고인돌(1995년 작)이 전시 중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 작품을 감상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색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식 비용을 지불하고 공간을 빌린다.

선거관리 관계자는 “투표소가 멀거나 접근성이 불편한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투표인증 이벤트 ‘풍성’

유권자가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선거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금(1등 500만원)을 받는 이벤트인 ‘국민투표로또’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시민들은 투표후 해당이벤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인증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광주 한 체인 안경점에서는 투표인증시 구매금액중 1만원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등 각계의 참여가 이어졌다.

김희열씨(34)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투표를 하면서 이벤트에도 응모할수 있어 일석이조다”고 밝혔다.

“집에 데려다 줘”

광주 남구 대촌동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어르신들이 입구에 둘러 앉아 “버스 언제 오냐. 집에 좀 데려다 줘”라며 불만을 표실했다.

인근 석정·농막·석교 마을 어르신 20여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선거인에게 투표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차량을 타고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를 마쳤지만 30여분이 지나도록 버스가 오지 않아 곳곳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

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마을 간 거리가 멀고 관내 투표소 3군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운행표에 명시된 시간에 맞춰 왔지만 어르신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투표소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거나 초등학교 아이와 함께 투표소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유권자들이 투표 종사원들로부터 제지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유 모씨(22·여)는 “첫 투표라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다음 투표 때는 인증샷은 건물 입구에서만 찍겠다”고 멧쩍은 웃음을 보였다.

/사회부

“청소년들의 처우가 더 나아졌으면”

이색투표자 - 생애 첫 투표 모준하씨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는 후보자를 뽑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광주 남구 청소년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8일 사전투표한 모준하씨(21)는 작년까지 모의투표 운동을 하다 올해 처음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

모씨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 했다. 대선이 5월이었는데 생일이 7월이라 2개월 차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더욱 세심히 공부하고, 투표용지 앞에서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투표에 임했다.

특히 그는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더욱 꼼꼼하게 알아봤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정책보조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이다.

모씨는 “하는 일이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투표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투표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인데 이들을 위해 유권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감에게 한 표 행사하는 일인 것 같았다”며 “교육감들이 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만 16세까지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춰도 좋을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교육감도 학생들로부터 직접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혔다. /김종찬 기자

투표용지 찢다 선관위 적발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12일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

○...전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6분께 목포시 하당동 제2 투표소에서 한

중년 남성이 투표용지 4장을 찢었고 강진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 무효표 처리된 것.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의를 당부.

/정근산 기자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1억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